

농림축산식품부

설 전후 방역관리 강화  
전국 일제소독·방역홍보 캠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 기간 동안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및 생산자단체와 협력해 전국 일제소독 캠페인과 가축방역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

설 명절 전후인 2월 12일과 19일에 소독차량 등 가용 소독장비를 총 동원해 전국에 걸쳐 일제 청소와 소독을 실시했다. 이번 일제 청소와 소독은 전국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 축산시설 출입차량 뿐만 아니라 방역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축산농장과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자체 소독장비를 활용하여 내·외부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축산차량 운전자는 인근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거나 소속 회사에서 세차와 차량 내·외부 소독을 실시했다.

\* AI 8대 방역취약지역 : 철새도래지, 밀집사육지역, 소규모농가, 전통시장, 가든형식당, 중간상인 계류장, 계란집하장, 고령농가  
\* 구제역 방역취약지역 : '16~'17년 발생지역(9개 시군), 구제역과거 감염(NSP)향제 검출지역('17년 34개소), 밀집사육지역(71개소) 등

또한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및 농림축산검역본부로 구성된 정부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실태점검을 했다. 이와 더불어, 귀성객과 여행객,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주요 방역정책을 홍보하고 가축질병 방역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귀성객과 여행객의 이동이 많은 대중교통시설의 전광판에 홍보문자를 표출하고, 고속도로 진·출입로, 마을입구 등에 홍보용 현수막을 설치하며, 국제 공항만에서는 AI·구제역 발생국가와 해외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입국 시 신고와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홍보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처 협력...고병원성 AI 대응 강화  
발생동향·유전자 특성정보 공유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및 인체 감염 방지 등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국·내외 발생동향, 유전자 특성정보를 질병관리본부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 긴급상황에 대비한 AI 항원 대량생산에 이용할 백신생산용 유전물질(재조합 벡터\*)을 제공한 바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공(18년 1월)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한 백신생산용 유전물질(재조합 벡터\*)을 이용하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항원 제조가 가능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AI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추진 중인 'AI 항원뱅크\*\* 비축'에 이용될 예정이다.

\* 벡터(Vector): 숙주에 이종의 DNA를 운반하는 DNA  
\*\* 항원뱅크(Antigen Bank): 백신용 항원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보관하는 것

해당 백신생산용 유전물질은 2010년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용역을 통해 충북대학교 최영기 교수팀과 공동 개발하였고, 2013년 국내 특허, 2015년 미국 국제특허등록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국가 방역 역량 강화를 위해 추후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유특허기술 무상 통상실시권 이전 등 산업적 사용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018년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선제적 방역·위생·검역사업 추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2월 22일 세종시 소재 본부 회의실에서 '2018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임경종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AI·구제역 등 악성가축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농장에서 소독 등 차단방역이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방역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촘촘하고 선제적인 방역·위생·검역사업 추진을 통해 가축질병 청정화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안정적인고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낮은 복지와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7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접수(안), 감사보고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방역 추진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2017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예산 결산(안), 2018년 사업계획(안), 직제 규정 개정(안), 2018년도 일반회계 수입·지출예산 변경(안) 등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생물안전안내서(KBSG) 발간**  
**민관부처 합동...현장 안전관리 도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6개 부처(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산업통상자원부(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와 민간협회(한국바이오협회, 한국생물안전협회)가 연합하여 구성한 '한국생물안전안내서 발간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생물안전 관리기술 및 체계를 통합한 '한국생물안전안내서'(Korea Biosafety Standard and Guideline, 이하 "KBSG")를 발간했다.

KBSG는 미국의 BMBL (Biosafety in Microbiological and Biomedical Laboratories), 캐나다의 CBSG (Canadian Biosafety Standards and Guidelines)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발간되는 국가단위의 공식적인 생물안전 종합 안내서이다.

KBSG는 국가생물안전 문화 확산 및 연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처 합동으로 발간됐으며, 발간 책자는 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취급하는 기관에서 자율적인 생물안전 관리를 수행하는 데 전문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KBSG는 실험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한 병원체 및 LMO 취급기준과 비상시 대응방법에 대하여 국내외 기준을 제시하여 분야별 상호비교, 연계활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건강·생명을 보호하고자 했다.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혁신...국민 삶의 질 향상  
2018 업무계획 발표

농촌진흥청은 2월 6일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한 농업의 미래성장 및 수출 산업화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농업·농촌 활력 제고'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ی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전한 먹거리 생산', '미래성장동력 확보',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협력', '농업·농촌 활력증진' 등 4대 분야 8개 중점 추진과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밀착형 연구개발·보급으로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안전한 먹거리 공급', '복지농촌 조성' 등 주요 농정과제의 달성을 위해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농업소득의 안정적 성장과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식량의 안정생산 및 기후변화 대응 기술과 친환경 안전농축산물 생산 기술을 확산할 계획이다. 식물추출물 등을 활용한 융합형 닭진드기 방제기술, 항바이러스 사료첨가제 개발 및 동물복지농장 인증기준 개선을 통해 근본적 가축질병 예방을 추진하며, 19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에 대비해 소면적 작물 농약등록을 확대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은 "시장개방 확대와 기후변화, 고령화 등 우리 농업·농촌이 큰 변화에 직면해 있지만 이러한 도전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고객중심·현장중심의 연구개발·보급을 통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에 온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투명한 HACCP도 청렴이 바탕  
청렴실천 다짐나무 제작식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원)은 2018년 신년과 HACCP통합기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1월 30일 본원 로비에서 전 임직원이 모인 가운데 '청렴실천 다짐나무 제작식'을 가졌다.

'청렴실천 다짐나무'는 HACCP인증원 임직원들이 청렴실천의 마음가짐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보다 더 청렴한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인증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렴나무에는 직원을 개개인의 마음으로 일군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다. 열매에는 직원상호 간에는 신뢰·존중과 배려의 자세를, 국민에게는 섬기는 마음가짐을 패찰로 작성해 청렴나무에 하나하나 직접 부착했다.

청렴나무는 직원들이 수시로 보고 자신의 마음가짐을 다잡는 것은 물론, HACCP인증원을 찾는 민원들에게도 같이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청렴나무를 본원 1층 로비에 위치시켰다.

'투명한 HACCP도 청렴이 바탕이다' (장기윤 원장)

이밖에도 HACCP인증원은 공익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고객 접점에서 각종 홍보물을 제공하고 소통함은 물론 내부 직원의 애로사항 경청 및 개선을 위해 익명신고 채널을 개설하는 등 청렴의식 함양과 함께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다.

**축산환경관리원**

**농축산식품 ICT 융복합 환경 조성  
정보 공동활용 상호협력 다짐**



축산환경관리원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농축산식품 ICT 융복합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월 6일 농정원 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양 기관은 그 동안 '농축산 정보 이용 활성화'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해 농축산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ICT 융복합 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금번 협약은 기존의 정보 공유를 보다 확장한 개념으로 농축산식품 ICT 융복합 환경 확산을 통한 빅데이터 구축 및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협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정원은 관리원에 정보화 환경 마련 및 ICT 축산악취 관제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서버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관리원은 농정원에 농축산식품 빅데이터(Bigdata)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의 농가정보를 단계적으로 제공하며, 양 기관은 농축산식품 ICT 융복합 환경 확산을 위해 농축산분야 ICT 장비의 기술자문 및 컨설팅, 전문교육 등에 관해 상호 지원하기로 했다.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3월 중 관리원의 악취관리 지원센터장과 농정원의 정보화전략실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올바른 구입·섭취·사용요령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국민이 설 명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식·의약품의 올바른 구입·섭취·사용 요령 등 안전정보를 제공했다. 알아두면 유익한 식·의약품 안전정보의 주요 내용은, 식중독 등 식품안전 예방 요령,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멀미약 등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화장품 구매요령,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올바른 사용 방법 등이다.

**▶ 식중독 등 식품안전 예방 요령**

설 명절에는 한 번에 많은 음식물을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연휴 기간 내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식중독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겨울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체인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높아 사람 간 전파력이 매우 강하므로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음식을 만들지 않도록 한다. 명절 음식은 조리 후 2시간 내로 식혀서 덮개를 덮어 냉장 보관하고, 냉장 보관한 음식은 다시 가열하여 섭취한다.

**▶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설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과 같은 허위·과대·비방 등 표시·광고에 현혹되어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문구 및 인증 마크와 한글표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다. 특히,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판매되고 있는 '건강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마크가 없다.

**▶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장거리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멀미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복용 시 주의해야 한다.